

“Nubank (NU: NYSE)”

라틴 아메리카 최대 금융 혁신

Summary

라틴 아메리카
금융 혁신
시총 60조원 기대

브라질 최대의 인터넷 은행 Nubank(누뱅크)가 12월 8일 즈음 미국 뉴욕 시장에 상장될 예정입니다. 누뱅크는 온라인 계좌의 개설, 운영과 카드 발급을 서비스하는 Fintech(핀테크) 기업입니다. 금융 인프라가 낙후되어 있던 라틴 아메리카에서 누뱅크의 핀테크 서비스는 혁신적이었습니다. 전통적인 은행보다 빠르고 간편한 계좌 서비스, 압도적으로 저렴한 카드 수수료 및 대출 이자가 대표적입니다. 정부와 협력하여 새로운 송금 시스템 Pix를 제공하는 등 종합 금융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상장을 통해 누뱅크는 4.3조원의 공모 자금을 조달할 예정이며 시총이 60조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됩니다. 브라질 최대 시중은행 Itau Unibanco(이타우 유니뱅크)보다 큰 규모인데, 뉴욕 시장에 상장된 라틴 아메리카 기업 중 가장 큰 시가총액이 될 전망입니다. 예상 공모가 범위는 \$10 - \$11 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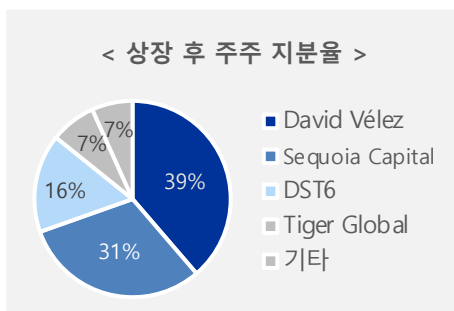
출처: Nubank Website

History

핀테크의 블루오션
라틴 아메리카

누뱅크는 2013년 David Vélez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벨라즈는 스탠포드 대학교 출신으로 Sequoia Capital에서 벤처 투자자로 일했습니다. 그는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은행에 갔다가 브라질 금융의 낙후된 현실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직원과 마주하기까지 45분이 걸렸고, 계좌 개설 완료에 4개월이 걸렸습니다. 당시 기존 은행의 신용카드 이자율은 200%~400%에 달했고, 계좌 관리비는 최소 \$20이었습니다. 브라질 인구의 절반은 신용카드나 은행 계좌가 없었습니다. 벨라즈는 누뱅크를 설립했고 8년 만에 급성장했습니다. 2021년 3분기 고객의 수가 4천8백만명에 이르렀고, 인터넷 은행들 중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고객 수를 확보했습니다. 브라질, 멕시코, 콜롬비아 등 라틴 아메리카 전반에 걸쳐 서비스 중입니다.

세콰이아 캐피탈,
텐센트,
버크셔 해서웨이의
투자



출처: Nubank 투자설명서

상장 후 CEO의 지분이 39%입니다. 외부 투자자들에게서 총 2.7조원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세콰이아 캐피탈은 여러 차례 펀딩 라운드에 참여해 투자했고, 지분의 31%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최첨단 인터넷 기업에 투자하는 DST 인터네셔널이 16%의 지분을 가집니다. 그 외에도 텐센트와 버크셔 해서웨이가 누뱅크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Business

디지털 전환으로 급성장

코로나19 사태로 급격하게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잠시 침체를 겪은 누뱅크는 디지털 전환으로 고객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누뱅크의 매출은 예금 이자 수익과 카드 수수료, 대출 이자에 집중되어 있기에 고객 수가 중요합니다. 2021년 3분기 고객 수는 4,900만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62% 증가했습니다. 2021년 1~3분기 누적 매출액은 11억 달러로 지난해 전체 매출액보다 44% 많습니다. 고객 증가에 따른 매출액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지난해까지 손실이 확대된 것은 신규고객 유치를 위해 지역 확장과 기술 투자에 대규모 비용을 지출했기 때문입니다. 확장 후에는 수익구조가 안정화될 전망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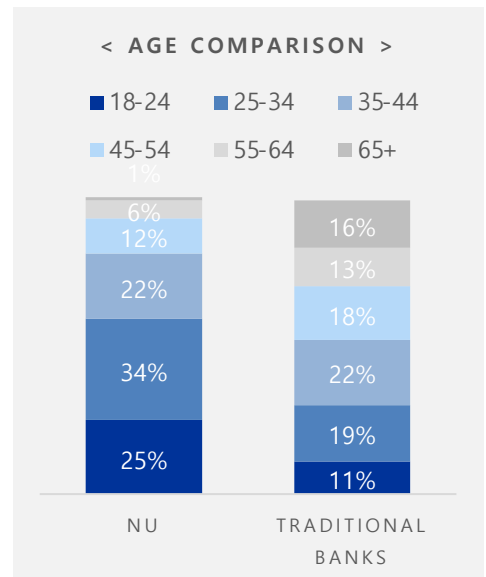
USD(백만)	2018	2019	2020	1Q21	2Q21	3Q21
매출	319.0	612.1	737.1	245.1	336.1	480.9
영업이익	(145.1)	(377.2)	(419.0)	(53.4)	(6.5)	(21.8)
순이익(손실)	(28.6)	(92.5)	(171.5)	(56.5)	(17.3)	(1.7)

출처: Nubank 투자설명서

Key Insight

브라질 정부의 핀테크 투자 - Pix

브라질 정부는 핀테크 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 브라질 중앙은행은 핀테크 서비스가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송금·결제 시스템 **Pix(픽스)**를 출시했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하면 Pix Key(전화번호, 이메일, 개인 고유번호)와 연동되어 앱에 등록된 계좌를 통해 모든 금융 활동이 가능합니다. 브라질에서도 연중무휴 실시간으로 은행간 송금, 온라인·현장 결제 등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브라질 인구의 70%가 픽스를 실생활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1위 사업자인 누뱅크에게 픽스는 큰 기회입니다. 정부 주도의 금융 디지털화가 가속되며 누뱅크의 성장속도도 빨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Nubank 투자설명서

젊은 세대의 선택

누뱅크는 디지털에 익숙한 **MZ세대**의 이용률이 높습니다. 라틴 아메리카는 20-30대가 인구의 32%를 차지할 정도로 청년인구 비율이 높으며, 기존 은행에 비해 고객의 연령층이 낮은 것은 큰 이점입니다. MZ세대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누뱅크의 이용자도 급증할 수 있습니다. MZ세대의 참여율이 높은 암호화폐 거래 시스템 도입도 준비하고 있기에 누뱅크의 성장 가능성은 높다고 판단됩니다.